

김주미 “유종의 미 거둔다”

LPGA 왕중왕전 첫날 2타차 공동 2위

홍진주 1오버파 73타 미국 무대 첫 신고



김주미가 10일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첼 컴퍼니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1라운드 18번홀에서 두번째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컵을 안았던 김주미(22·하이트)가 시즌을 마무리하는 대회에서 두 번째 정상에 도전할 발판을 만들었다.

김주미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장 매그놀리아 그로브 코스(파72·6천253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첼 컴퍼니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때려 단독 선두 플라 크리머(미국·64타)에 2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이 대회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투어 대회 우승자 39명만 출전하는 '왕중왕전'으로 시즌 최종전인 ADT 챔피언십 직전에 열린다.

개막전 SBS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뒤 '시즌 중 스윙 교정'이라는 모험을 선택한 김주미로서는 스윙의 완성을 입증할 기회를 시즌 막판에 잡은 셈이다.

김주미는 평균 비거리 254.5야드라는 만만찮은 장타를 뽐내면서도 페어웨이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12차례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다.

특히 7번홀(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을 직접 홀에 넣은 데 이어 13번홀(파5)에서도 이 글을 뽑아냈다.

마지막 18번홀(파4)을 보기로 마친 것이 옥에 티였다.

이지영(21·하이마트)과 임성아(22·농협한삼인)가 나란히 4언더파 68타로 8위그룹에 포진, 선두권 추격의 디딤돌을 놓았고 강지민(26·CJ)은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11위를 달렸다.

하리 부상 후유증으로 힘겨운 투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박지은(27·나이키골프)도 2언더파 70타로 공동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에서 열린 LPGA 투어 대회인 코오롱-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이 대회 출전권을 잡은 홍진주(23·이동수캐션)는 1오버파 73타를 쳐 그란데로 무난한 미국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홍진주는 샷은 대체로 좋았지만 처음 겪어보는 미국 그린에 적응을 못해 3퍼트로 타수를 잃었다.

지난해 2승을 거두면서 신인왕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던 크리머는 보기없이 8개의 버디를 골라내는 완벽한 플레이로 선두에 나섰다.

올해 상금왕과 다승왕을 노리고 있는 상금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도 김주미와 함께 공동 2위(66타)에 올라 시즌 여섯 번째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코나미컵 중국 올스타와의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양준혁이 자신이 친 타구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삼성 15안타 폭발... 中에 7회 콜드승



전병호 호투속 5회 대거 10점 뽑아 13-1 대승

삼성 라이온즈가 아시아 프로야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6'에서 화려하게 폭발한 타선을 앞세워 최약체 중국 드림팀을 제물로 첫 승을 신고했다.

한국시리즈를 2연패한 삼성은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예선리그 2차전에서 선발 투수 전병호의 호투 속에 홈런 없이 15안타를 몰아친 끝에 중국에 13-1, 7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이로써 전날 니혼햄 파이티스전 완패에 이어 1승1패를 기록한 삼성은 11일 오후 7시 대만 챔피언 리그 베이스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승 진출이 판가름나게 됐다.

삼성엔 제이미 브라운이 선발로 출격한다.

이날 삼성 선발로 나선 전병호는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속아내며 4안타 1실점으로 막고 지난 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중국전 승리투수가 돼 '중국 천재' 명성을 입증했다.

3회까지 선발 1안타에 그쳐 전날의 악몽을 떠올리는 듯 했던 삼성은 2회 조동찬의 내야 안타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삼성엔 심정수의 볼넷으로 만든 2사 1, 2루에서 김한수의 적시 2루타 때 상대 유격수 허우펑 쉐의 중계 플레이 실책까지 겹쳐 2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아 2-0으로 앞섰다.

기선을 잡은 삼성 타자들의 방망이가 5회 대폭발했다.

김재걸과 김중훈의 연속 안타와 박한이의 보내기 번트로 2사 1, 2루를 만들자 중국은 양준혁을 고의사구로 내보내 누를 채웠고 심정수가 2타점 적시타로 4-0을 만들었다.

삼성엔 공격의 고배를 늦추지 않고 타자 일순하며 5회에만 9안타와 고의볼넷, 상대 실책에 편승해 10점을 뽑아 12-0으로 승부를 갈랐다.

삼성엔 6회에도 1사 1, 2루에서 이정식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태 12점차 완승의 대미를 장식했다.

/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전천후 골잡이 4인방 찾았다

신영록·심영성 4골, 이상호·송진형 3골

亞청소년축구 결승진출 좌절

'진주 4인방을 찾아냈다.'

19세이하(U-19) 한국 청소년축구대표팀이 9일 밤(이하 한국시간) 인도 콜카타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숙적 일본에 승부차기 끝에 분패해 결승행이 좌절됐다.

조동현(55)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팀은 12일 요르단과 3.4위전을 남겨놓고 있다.

한국은 또 4강 진출로 내내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청소년대회(19-20)대회 출전 티켓을 이미 확보했다.

청소년팀은 이번 대회에서 결승 진출을 발 견해 낸 게 가장 값진 성과다.

조동현호가 자랑하는 열 아홉 동갑내기 신영록(수원), 심영성(제주), 이상호(울산), 송진형(FC서울) 등 전천후 골잡이 4인방은 내년 7월 캐나다에서 열린 U-20 세계청소년대회를 겨냥해 희망을 비추기에 충분한 '내용'을 보여줬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비록 4강에 그쳤지만 참가팀 중 가장 많은 17골을 터트렸다.

결승에 오른 일본과 북한이 각각 11골, 9골인 점을 감안하면 화려 만큼은 최강을 자랑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특히 골이 특장 선수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희망적이다.

신영록, 심영성이 각각 4골, 이상호와 송진형이 3골씩 뽑았다.

이미 베어백호의 부름을 받은 신영록은 키르기스스탄전에서 유일한 헤트트릭으로 폭발력을 과시했다.

신영록은 정조국, 김동현 등 '파워 스트라이커'의 후계자가 될 자질을 갖췄다.

심영성은 이번 대회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개막 요르단전 2골과 일본전 비라골로 결정력을 과시했다.

이상호는 올 시즌 K-리그 신인으로 17경기에서 2골, 2도움을 올려 프로 실전용으로 자리를 굳혔다. 팀 선배 이천수(울산)처럼 골과, 슈팅에 모두 능한 팔방미인형이다.

송진형은 가장 순도높은 두 골을 뽑았다. 8강 호주전에서 프리킥 두 방을 연달아 꽂아 세계대회 티켓 획득을 앞장서 일궈냈다.

미드필더로 고교도 중거리포를 장착해 김두현(성남)과 같은 공격형 무기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요르단을 1-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북한은 12일 밤 10시30분 일본과 우승을 다툰다. 한국은 같은날 오후 7시 30분 요르단과 3-4위전을 갖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양용은 '주춤' 공동 8위로

EPGA 2R 6언더
최경주 4언더 17위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던 양용은(34·케이 지디자인)과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HSBC 챔피언스 이틀째 경기에서는 매서운 샷을 보여주지 못했다.

양용은은 10일 중국 상하이의 시안인테셔널골프장(파72·7천165야드)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2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보기에 3개로 맞바꾼 이븐파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내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전날 공동 2위에 올랐던 양용은은 중간 합계 6언더파 138타를 쳐 공동 8위로 내려 앉

았다.

최경주도 버디 2개, 보기 2개로 이븐파에 그쳐 중간 합계 4언더파 140타로 전날 공동 7위에서 17위그룹으로 밀려 갔다. 석중을(38·캘러웨이)은 7오버파 151타로 공동 61위.

반면 전날 공동 27위에 머물렀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보기는 1개로 막고 이글 1개, 버디 7개를 쏟아내는 8언더파의 불꽃타를 휘둘러 중간 합계 8언더파 136타로 선두 조티 라다와(인도·10언더파 134타)에 2타 뒤진 공동 3위로 뛰어 올랐다.

1라운드에서 공동 7위를 했던 레티프 구센(남아공)은 5타를 줄인 9언더파 135타로 단독 2위로 도약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임은아 이틀연속 선두

신지애 1오버파 15위
KLPGA 스타투어 2R

프로 3년차 임은아(23·힐라코리아)가 미루고 미뤘던 생애 첫 우승을 향해 차근차근 다가갔다.

임은아는 10일 경기도 안성시 세븐힐스골프장(파72·6천241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B 국민은행 스타 투어 4차 대회 이틀째 2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로 선두를 달렸다.

첫날 절정의 퍼팅 감각을 앞세워 보기없이 버디 5개를 골라내 2위그룹에 2타차 단독 선두에 나섰던 임은아는 짧은 퍼팅을 잇따라 놓치는 등 고전했지만 공동 2위의 몰락에 힘입어 3타차 선두에 올랐다.

또 상금랭킹 9위에 올라 있는 실력과 흥난(20·이수건설)이 2언더파 70타를 치며 3언더파 141타로 단독 2위로 올라섰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 신지애(18·하이마트), 박희영(19·이수건설), 최나연(19·SK텔레콤)도 약속이나 한 듯 1언더파 71타를 치며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즌 상금 4억원이라는 전인미답의 경지에 도전장을 낸 '슈퍼루키' 신지애는 1오버파 145타로 공동 15위에 포진하면서 남은 이틀 동안 7타차를 뒤집겠다는 역전 의지를 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형태, 강경남 제치고 선두 올라

KPGA 하나투어 2R

올 연말 결혼을 앞둔 김형태(29·이동수캐션)가 한국프로골프(KPGA) 하나투어 몽베르 챔피언십 둘째날 선두에 올랐다.

김형태는 10일 경기 포천의 몽베르골프장 브럼팍·에베코스(파72·7천199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쳐 중간 합계 5언더파

139타로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 등 공동 2위 그룹을 1타차로 제쳤다.

첫날 단독 선두였던 상금왕 후보 강경남은 14번홀까지 3타차 선두를 달리면서 순항했으나 15번홀(파3)에서 트리플보기 실수를 저지른 것이 뼈아팠다. 강경남은 선수를 빼앗겼으나 1타차여서 시즌 3승과 상금왕 등극을 위한 유리한 고지는 여전히 지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